

미국에 《초당》(The Grass Roof) 을 지은 디아스포라 ‘강용홀’

2015급 비교문학 석사연구생 김미란

1. 서언

미국으로의 한민족 이민은 19세기 말 미국이 조선에 정치,경제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된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다. 1903~1905년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7,226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이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들과 결혼하는 한인여성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후에 미군 남편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1965년에 미국의 이민문화가 개방되었을 때 가족초청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본격적인 미국한인사회의 성장은 1970년대 초반 이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신 이민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70~1980년대에는 연 3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모국에서 해외동포의 전문직·기술직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해외이민이 줄고 오히려 역이민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해외이민은 계속해서 감소추세로 흐르다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의 형태로 직장을 잃거나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자 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해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취업 목적 외에도 자녀의 조기영어교육을 위해 영어권 국가로 이민 가는 경우가 늘어났다.²⁾

2. 미국 한인문학

미국 한인문학의 전개양상은 미국 이민의 역사가 1백년과 함께 한다. 그 1백년의 세월 동안,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삶이 미국을 무대로 해서 펼쳐져 온 것과 또한 한국에 뿌리를 둔 소설도 미국을 무대로 해서 펼쳐져 왔다. 실상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소설 세계는 아마추어리즘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민 초기의 작품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미주 한인문학은 1930년대 초 강용홀에 의해 시작된 이민소설의 출현 이후 1950년대를 넘어 1960년대 초까지 더 이상의 별다른 확장이 없었다. 해방이 된 후에도 미주 한인의 수 자체가 여전히 적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설을 읽거나 쓰는 일 같은 것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더더욱 적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에 소설이 아마추어리즘의 범주를 금방 넘어서게 되기로 거의 불가능했다. 작가들이 바로 그런 극소수의 독자층만을 염두에 두고서 소설

1) 집의 본체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역새, 짚 등으로 지붕을 이어 만든 작은집을 말한다.

2)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p.200.

을 창작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소설 작품들의 수준이 갑작스레 상승하는 사태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문학잡지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의 수가 양적으로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늘어난 독자층과 늘어난 발표 지면 등의 영향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한글 소설로 창작에 도전하는 작가들이 많아지게 되었다.³⁾

3. 소설《초당》을 통한 강용흘 연구

3.1. 강용흘의 생애와 작품

저자 강용흘(姜鏞訖 : 1898~1972)은 미국에서 활동한 소설가이다. 그는 함경남도 흥원에서 출생했다. 어린 시절에 유학과 기독교의 교육을 받았으며 3.1운동 후 18세 때 중국과 일본을 거쳐 도미(渡美)하여 보스턴 대학에서 의학을, 하버드 대학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했다. 이어 《대영백과사전》의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작에 전념했다. 1931년에 한일합방과 3.1운동을 배경으로 한 자전적인 첫 영문소설 《초당》을 발표하였다. 그 후 로마 대학, 뮌헨 대학, 파리 대학 등에서 연구했으며, 뉴욕 대학 등에서 동양문화와 비교문학을 강의하였다.

그는 작품 《초당》으로 ‘구겐하임 상’과 ‘북 오브 더 센추리 상’을 수상하였다. 그로 인해 강용흘은 ‘한국계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소설 《행복한 숲》, 《동양인 서양으로 가시다》, 희곡으로 《왕실에서의 살인》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동양 시집》, 한용운의 《님의 침묵》 등이 있다. 그는 74세로 미국 롱 아일랜드 주 헌팅턴에서 별세했다.

그의 성장 시기는 일제 치하의 암울한 정국이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와 숙모들 사이에서 자랐다. 그는 장손이었던 탓에 할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컸다. 그의 아버지 또한 장손으로서 아내를 잃고 재혼을 하지 않고 집안을 돌보고 동생들을 챙기는 가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강용흘은 삼촌 중 한 사람이 뛰어난 한학자였기 때문에 한학과 한시를 배웠는데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4세 때 이미 한시를 지을 정도로 명석했다고 한다.

강용흘이 일곱 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일본 경찰에 의해 매를 맞고 사망하였고 삼촌 또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당한다.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강용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한 때 교사로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둡고 억눌린 조선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 꿈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 후 영생중학교 교장인 미국 선교사가 귀국할 때 자신을 하인으로라도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다. 초라한 모습으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한 그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 땅에서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었고 1927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에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3) 이진하, <미국 속의 한국 이민문학 연구-강용흘 《초당》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8~15.

3.2. 소설 《초당(The Grass Roof)》

1931년 뉴욕에서 《초당》이라는 영문 장편 소설이 출간됐다. 한국인이 한국을 배경으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써서 성공을 거둬 주목받은 작품이다. 2부 24장으로 구성된 《초당》은 강용흘이 출생부터 도미하기까지의 삶을 회상하듯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제목 ‘초당’은 유성원(柳誠源, ?~1456)의 시조 ‘초당에 일이 업서…’에서 따온 것으로, 한국 전통가옥을 상징하며 한국적인 삶이 극명하게 표현돼 있다. ‘구겐하임 상’, ‘금세기의 책(The Book of the Century) 상’ 등을 수상했으며 독일, 프랑스 등 1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됐다. 한국어로는 1947년 제1권만 번역, 간행되고 제2권은 번역되지 못했다.

작가 강용흘 자신이 함경도에서 성장한 후 멀리 미국으로 떠나게 될 때까지의 성장과정과 주변 환경이 자세히 서술된 이른바 자전적 소설이다. 소년 ‘한청파(주인공, 작가 자신)’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서양에서 새 학문을 배워 와서 조국의 개화에 공헌하겠다는 야심 때문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동양의 정신문화를 서양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초당(The Grass Roof)》은 옛 선비정신을 비롯한 한국인의 열, 한국의 역사, 한일합방의 경위, 개화기 지식인의 고뇌, 3.1운동의 경위 등 격변기 한국사회의 단면을 상세히 그리고 있다.

또한 주인공 한청파의 고향인 함경도에서의 자연친화적인 삶과 이를 파괴하는 일제의 침략 및 3·1 운동 과정 등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주인공의 정신적인 발전 과정 등을 회고조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이 성공을 꿈꾸며 미국행 여객선을 타는 것으로 끝을 맺는 이 소설은 ‘아메리칸 드림’을 다룬 선구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 세계에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의 역사와 전통, 또 일제의 강점과 이에 대한 저항 등을 그 어느 전문적 외교가나 정치인보다 훌륭하게 소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3.3. 소설 《초당》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각 나라로 흩어진 한반도 디아스포라 1세대 소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주제는 자전적인 내 용이 강하다는 것이다. 강용흘의 《초당》도 역시 그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강용흘은 초창기 재외 한국인 작가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화려한 학벌과 경력을 자랑한다. 함흥 영생(永生) 중학을 졸업하고 도미해 보스턴대학에서 의학을, 하버드대학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한 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편집위원을 거쳐 말년에는 뉴욕대학과 예일대학 등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강의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잠시 귀국하여 미 군정청 출판부장 등으로 재임하다 6·25 직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러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강용흘은 조국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비참하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다.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아시아계 1세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조국을 미화하거나 상류층의 생활들을 주로 묘사했다. 그러나 강용흘은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 솔직한 조국의 모습을 그려냈다.⁴⁾ 또한 자신이 지닌 영어 실력과 풍부한 지적 능력을 작품에 다양하게 담아냈다. 외국인인 강용흘이 영어로 소설 작품을 써 냈다는 것은 이민자로서 기죽은 변두리 문학이 아닌 미국 문단과 전 세계의 문단에 대한 도전이었다. 1세대 디아스포라가 가지는 새로운 땅에서의 척박한 삶에 대한 언급보다 더 나아가 그 지역의 주류에 도전하고 노력하여 결국 그곳에 입성해 우뚝 선 디아스포라 강용흘 자신이 소설 《초당》속에 그대로 옮겨져 한청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4) 신혜품, <한국계 미국 소설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8, p.p.12~13.

4. 결론

강용흘은 한국에서 태어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품을 발표하여 화제를 모은 사람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작가이다. 1930년대 초 《초당》을 처음 출간하였을 때 미국 문단뿐 만 아니라 세계 문단에서도 비교적 큰 관심을 받았다.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어 무려 10여 나라에서 번역본이 나온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⁵⁾

비록 영어로 출간된 작품이지만 작품 속에는 한국의 전통적이며 토속적이 생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때로는 그런 장면들이 외국인들에게 다소 혐오스럽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쓰는 것이 옳다고 대응했다. 또한 소설의 여러 장면에서 한시를 해석해 옮겨 놓아 작품의 품격을 주었다. 이는 소설 작품을 통한 동양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까지 했다고 볼 수 있다.⁶⁾ 더 나아가 서양의 유명한 시 작품도 함께 삽입하였다. 동양에서 온 젊은 작가의 지적 수준을 보여준 자신감도 함께 제시한 소설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외국어로 집필된 한인 문학이 한국문학의 범주에 속하느냐 하는 쟁론에 하나의 대안인 의식의 정체성이 언어의 정체성 보다 더 중요하다는 예가 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조국의 현실을 떠나 미국에서 꿈을 좇아 살아간 젊은이가 있었다. 문학을 통해 조국을 전 세계가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알리고 또한 조국의 낙후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계무대에 올려놓은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 때 노벨 문학상을 놓고 경쟁의 위치에 있던 미국의 여류 작가 ‘펠 벅(Pearl Buck)’은 강용흘을 “가장 빛나는 동양의 지혜”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의 자전적 소설인 《초당》을 통해 문학가로 지식인으로 더 나아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이주민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아간 사람이었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 한인들이 재미교포 문단을 형성하고 문학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빗장을 풀었고 그 터전을 만들어준 선각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신혜품, <한국계 미국 소설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8.
- (2) 이진하, <미국 속의 한국 이민문학 연구-강용흘 《초당》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 채근병, <재미한인문학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강용흘, 김은국, 이창래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4) 신혜정, <한국계 미국소설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관계 : 강용흘의 《초당》, 이창래의 《네이티브 스피커》, 차학경의 《딕테》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5)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5) 이진하, <미국 속의 한국 이민문학 연구-강용흘 《초당》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27~28.

6) 신혜품, <한국계 미국 소설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2008, p.43.